‘사찰음식’ 세계화, 석학들이 논한다

문화사업단, 국제학술심포지엄
8월 19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美 · 英 등 5개국 6명 석학 참여
서울 진관사 등 사찰음식 팸투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불교만의 독창적 식문화인 ‘사찰음식’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은 “오는 8월 19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사업단이 개최하는 첫 국제학술행사로,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기념하고 사찰음식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을 목적으로 열린다.

‘지속가능한 음식문화로서 사찰음식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5개국 6명의 음식학 석학들이 참여해 △세계 음식학계의 현황 △사찰음식의 위치 △대안음식문화로서 사찰음식의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세계 양대 조리교육기관 중 하나인 미국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의 학장 ‘브렌던 R. 월시(Brendan Walsh)’가 참석한다. 월시 학장은 조리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상’ 수상자이자,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셰프 중 한 사람으로 사찰음식과 한식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전문연구자로는 △2024년 한식진흥원 주최 국제컨퍼런스 주요 발표자였던 양종집 미국 CIA 아시아음식학부 교수 △불교음식·의례 전문 연구자인 트레이시 리우(Tracy Liu)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글로벌 창의적 사고 연구소 연구원 △불교의례·차문화 전문가 케한 딩(Kehan Ding) 영국 에딘버러대 철학과 강사가 참여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음식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파올로 코르보(Paolo Corvo) 이탈리아 미식과학대교수 △중국 종교학·음식학 전문 연구자인 토마스 두보이스(Thomas David DuBois) 베이징사범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사찰음식 명장 적문 스님이 기조강연을 하며, 불교음식학 전문가 공만식 동방대학원대학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와 함께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사찰음식 팸투어’ 프로그램도 8월 16~18일 진행된다. 팸투어는 백양사 템플스테이 및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 참가를 비롯해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한국사찰음식 전문교육관 향적세계’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견학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찰음식과 한식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 참석 희망자는 8월 1일부터 한국사찰음식 홈페이지(koreatemplefood.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최대 1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제23회 유심문학상 박준·김상규·강화길

9월 5일 만해마을서 시상식



제23회 유심문학상 수상자 박준 시인(시 부문), 김상규 시조시인(시조 부문), 강화길 소설가(소설 부문).(왼쪽부터)

만해 한용운 스님과 설악 무산 스님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23회 유심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유심상 주관 단체 (재)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는 “제23회 유심문학상 수상자로 시 부문 박준 시인, 시조 부문 김상규 시인, 소설 부문 강화길 소설가가 선정됐다”고 7월 30일 밝혔다. 다만, 평론 부문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제23회 유심상 심사위원회는 시 부문 수상자 박준 시인에 대해 “기존 서정시의 관습적 틀에서 벗어나 일상적 구어를 통해 사소한 순간을 밀도 있게 포착하고 있으며, 여백을 통해 ‘의미화되지 않는 여운’을 구현하는 미학적 성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조 부문 수상자 김상규 시인은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 결핍의 정서를 섬이라는 공간에 투영해 독창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전통적 시조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제재나 주제의 확장에 따른 정형의 경계 넓히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소설 부문 수상자 강화길 소설가에 대해서는 “동시대 여성 서사의 정점을 보여 주는 작가로서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억압의 다양한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면서 깊은 울림과 보편적 공감을 얻어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서사적 지평을 열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제23회 유심상은 이숭원 문학평론가가 심사위원장으로, 손택수 시인·정수자 시조시인· 윤대녕 소설가·김종욱 문학평론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시상식은 9월 5일 오후 6시 강원도 인제군 동국대 만해마을 문인의집 대강당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각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⑤ 제법무아

연기적, 주체적으로 사고하라

諸法無我

불교 용어 가운데 일부는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과정에서 본래의 뜻이 흐려졌다. 대표적인 예가 열반과 무아다. 열반은 인간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흔히 ‘열반에 들었다’고 표현하면서, 열반은 점차 스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 인식되었다. 무아 역시 철학적 의미에서 벗어나 감성적으로 변형되었다. 우리는 종종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표현을 쓴다. 책이나 풍경에 매료되어 자신을 잊고 몰입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독서삼매’와 같이 쓰인다.

이처럼 자신과 대상의 경계를 잊고 몰입하는 삼매의 상태를 무아로 혼동하거나, 무아를 몸과 마음, 정신의 작용을 부정하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석가모니 붓다 이전의 인도에서는 세계를 주재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절대적인 ‘단일자’를 상정했다. 이를 ‘브라흐마나’ 또는 ‘아트만’이라 불렀다. 브라흐마나는 우주적 신성이며, 아트만은 개별 존재 안에 깃든 신성이다. 아트만은 ‘항상 하나로서 주재하는 존재(常一主宰者)’로 번역되었고, 중국에서는 이를 ‘아(我)’로 옮겼다.

인간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의 존재를 상정하며 위안을 얻고자 한다. 당시 사람들은 아트만이 각 개인 안에 존재하며 감각과 사고를 조정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쉽게 왜곡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모두 배후에서 아트만이 시킨 일로 여긴다면, 단일 주재자인 아트만은 책임지지 않는 모순된 존재가 된다. 이러한 논리는 차별과 억압,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모든 일이 아트만에 의해 조정되었다는 전제가 그 근거가 된다.

이에 붓다는 단호히 선언했다.

“아트만? 그런 것은 없다.”

아트만은 어떤 현상에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허구이며, 그럴듯한 논리로 꾸며 낸 망상의 산물일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와 삶의 양상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가? 불교는 이에 대해 ‘연기(緣起)’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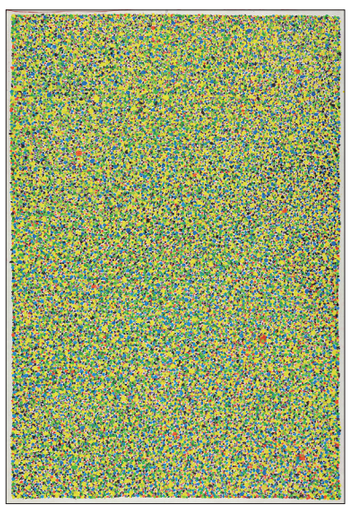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이처럼 상호의존이라는 연기의 법칙 안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불교는 ‘무엇이 움직이는가’ 대신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주목한다. ‘어떻게’에 자유의지를 불어넣으면 ‘무엇’이 된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에 달렸다.

〈화순 불암사 주지〉

‘점’을 통해 명상하고 사유하다

솔뫼 정현식 16번째 개인전
모노하 한남서 8월 19일까지



정현식 작가의 작품 ‘알아차림, 점을 쓴다’.

서울 용산구 모노하 한남은 8월 6일부터 19일까지 정 작가의 16번째 개인전 ‘알아차림, 점을 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오랜 시간 탐구해 온 ‘점’이라는 행위와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재해석한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점’이 갖는 의미를 “멈추고 숨 쉬며 ‘알아차림(awareness)’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그는 점을 통해 현재의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표현하며, 이 행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간절한 기도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작가는 “생은 밥숟가락을 들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축적하는 일”이라며 점을 통해 삶의 의미와 철학적 성찰을 이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 작가의 작품은 선불교의 ‘알아차림’ 명상 사유와 연결된다. 그는 “점을 쓰는 수십만 번의 차이의 숭고한 반복은 법을 넘어서는 예술적 사건이며, 의식의 흐름과 감정을 새겨 놓는 총체적 사유의 결정체”라고 말한다. 그의 작품은 점의 반복과 형상성을 통해 인식의 전환과 치열한 수행의 울림을 담아내며, 고정된 생각을 넘어선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보여 준다.

신중일 기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재가 거사가 법을 설하다!

유마경

공과 무상, 불이사상을 담고 있어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면서 선불교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유마경이 혜원 스님의 현대적 예화와 강설에 의해 새롭게 다가온다.

혜원 강설/신국판변형/양장/320쪽/값 21,000원

페미니스트는 불교도가 될 수 있는가?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

저자는 여성과 남성 공히 젠더 정체성에 갇혀 고통받고 있으며, 젠더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불교의 무아, 공성에 대한 깨달음에 있음을 보여준다.

리타 그로스 지음, 김민정 옮김/신국판/272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